

## 일부지역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 실태에 관한 연구

이미용\*, 문수재<sup>1)</sup>, 이명희<sup>2)</sup>, 오혜숙<sup>3)</sup>. 연세대 교육대학원 가정학교육학과,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sup>1)</sup> 배재대 가정학교육학과<sup>2)</sup> 상지대 식품영양학과<sup>3)</sup>

영 유아기는 신체 성장율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양 섭취는 영 유아의 건강 상태나 성장 발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영양 관리에 있어 영양과 소화, 위생면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절한 이유를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 및 성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직할시와 원주시, 부여읍에 거주하고 있는 영 유아의 어머니 6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 유아의 수유 및 이유 실태와 어머니의 이유 인식 정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를 여러 변인들에 따라 분석하여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유식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어머니들은 주로 26-34세로서 고졸 이상의 전업 주부로 경제 수준은 중류층이었다. 조사대상 유아의 수유실태는 모유 영양이 35.6%, 인공 영양이 56.6%, 혼합 영양이 7.8%였는데 전업 주부와 경제 수준이 낮은군, 출생 순위가 낮은 유아군에서 모유 영양율이 높았다.( $p < 0.01$ ) 조사 대상 어머니들이 임신 및 수유 중에 금하는 식품으로는 닭고기, 개고기, 오징어, 커피, 술 등이 주로 많았다. 조사 대상 전체의 63.75%가 이유란 '젖을 주면서 점차 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여 인식정도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한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수록 이유의 시작을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p < 0.05$ ) 이유에 관한 영양 교육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3%가 이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유 실시와 유아의 성장 발달, 이유식 만드는 법, 이유식 양과 주는 방법, 진행 방법, 시판 이유식, 이유 시기에 관한 것의 순서였다. 조사 대상 유아의 이유 시작 시기는 전체의 25.7%가 생후 3개월 이전에 시작하였으며 70.0%가 생후 6개월 이전에 이유를 시작하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수록, 유아의 출생 시기가 최근일수록, 인공 영양아인 경우 이유 시작 시기가 빠름을 볼 수 있었다.( $p < 0.05$ ) 이유를 완료한 시기는 전체의 37.4%가 생후 12개월을 전후로 한 11-14개월에 이유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변인들과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유식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집에서 만들어 주면서 시판 이유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과일을 이용한 것들, 시판 이유식은 가루 형태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판 이유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취업 주부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여서'였고 전업 주부의 경우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p < 0.01$ ). 조사 대상 유아의 기호 식품에 대하여는 과일류를 가장 선호하였고 싫어하는 식품은 육류 및 야채류였다. 어머니들의 48.1%가 유아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유아에게 주로 주고 있다고 하였다.( $p < 0.01$ )